

한국사회 중년기 전업주부의 삶의 재평가

전 경 숙

정 태 연[†]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 중년기 전업주부들이 자신의 지나온 삶을 어떻게 재평가하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막내자녀가 고등학생 이상인 14명의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면담을 회고적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질문은 관계적 측면, 심리적 측면, 경제적 측면 등에 관한 것으로 결혼 전과 후를 나누어 이루어졌으며, 면담은 보통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진행되었다. 자료분석은 참가자들의 회고적 삶의 이야기를 중심 의미단위로 환원함으로써 여러 개인이 경험한 현상의 의미를 기술하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참고했다. 그 결과, 각 단계별로 중요한 회고 내용은 아동청소년기에는 가족환경, 자신의 성격과 가치관 형성, 그리고 진로선택이었다. 성인초기에는 배우자 선택과 결혼, 성인초기 부부생활 적응, 그리고 가족관계 등이었다. 성인중기에는 자녀, 경제·정서적 안정, 가족관계, 배우자 수용, 자신의 삶의 수용, 그리고 건강과 종교 등이었다. 참가자들의 삶의 유형을 전환적 사건, 현재 삶의 의미 그리고 인생사건의 누적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기존의 발달이론 및 연구와 비교해서 논의하였다.

주요어 : 중년기, 삶의 재평가, 전업주부, 전환점, 회복력

[†] 교신저자 : 정태연,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
E-mail : tjung@cau.ac.kr

현대사회는 의학을 비롯한 과학 기술의 발전 그리고 영양과 위생상태의 개선으로 인해 평균수명이 크게 증가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노년기의 심리적 건강의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노년기의 전단계인 중년기의 심리적 건강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Keyes & Ryff, 1999). Moen과 Wethington(1999)의 종단연구에서는 노년기의 건강과 의존성, 삶의 질 등이 중년기의 삶의 모습이나 생활양식과 크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선진국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노년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노년기의 전단계인 중년기의 삶에 대한 이해와 중년기에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조희선, 양다진, 2003). 따라서 중년기를 어떻게 보내는가는 이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년 세대의 삶에 주목을 할 수 밖에 없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중년세대는 베이비부머가 본격적으로 중년기에 진입하면서 거대한 집단이 되었다. 이러한 중년세대는 산업화의 결과로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긴 시간을 단순한 의식주 충족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고 더 건강하고 질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김경신, 김정란, 2001). 그렇다면 노년기를 곧 앞두고 있는 중년들은 중년기를 잘 보내고 만족스런 노년기를 위해 심리적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문제에서 출발했다. 발달시기로서 중년기는 삶의 재평가와 전환점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살펴봄으로써 중년기 사람들의 심리적인 특성과 노년기의 삶에 대한 태도를 밝혀보고자 한다. 중년기의 삶의 재평가가 가지는 의미를 살펴본 다음, 전환기로서의 특성을

알아보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내용을 소개하겠다.

중년기의 삶의 재평가

중년기에 이르면 신체적, 생리적 감퇴가 일어나면서 서서히 노쇠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질병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생물학적 변화가 일어난다. 특히 여성들은 폐경과 함께 성적 재생산 능력을 상실한다(Lachman, 2004). 심리사회적으로는 은퇴, 자녀들의 출가, 그리고 부모나 지인의 죽음으로 인한 공허감, 상실감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자녀와 노부모 봉양이라는 중간 세대로서의 부담도 커진다. 그래서 중년기는 위기라고 말하기도 한다(Jacque, 1965; Levinson, 1986).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녀양육에 대한 역할로부터 점차적으로 벗어나면서 자신에게 관심을 쏟으며 자아실현을 하거나 성장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시기이기도 하다(Hunter & Sundel, 1994). 그러므로 누구나 당면하게 되는 중년기의 변화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따라 이후의 삶의 질을 결정할 것이다.

중년기 이전에는 사람들은 정해놓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외부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 그것들을 성취하기만 모든 것이 만족스러울 것으로 여겼는데, 이제 여러 영역에서의 상실과 한계를 느끼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 의문이 들기 시작한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가? 나의 남은 인생은 무엇을 하며 어떻게 보낼 것인가?’와 같은 의문들이 떠오른다(Levinson, Darrow, Klein, Levinson, & McKee, 1978). 이 과정에서 남은 삶에 대해 더 주의 깊게 생각하면서 이전 삶에서 추구한 가치들의 우선순위를 재조

정하게 된다(Bühler, 1968; Peck, 1968; Ryff & Baltes, 1976). 기존의 자신, 자신의 가치관, 목표들을 재점검하면서 과거의 선택에 대해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며, 남은 삶을 위해서 중요한 우선순위를 바꾸고 목표를 재정립하게 된다. 인생의 구조를 전면 수정하기 보다는 하나의 전환점으로 삼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이 '중년기의 삶의 재평가'이며 중요한 발달과업이다(Jung, 1954; Levinson et al., 1978).

중년기 재평가는 왜 하게 되는 것일까? 학자들에 의하면 온전한 자신이 되기 위해서 일어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Jung, 1954; Levinson et al., 1978). Levinson 등(1978, 1996)에 의하면, 가정과 직업의 중요성을 바꾸고, 전업주부는 자신만의 욕구와 독립, 인정을 추구하며, 취업주부는 가정과 직업의 중요성을 바꾸고, 남녀평등의 욕구가 증가한다. 인생은 불가피하게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의 일부만을 사용하도록 허용된다. 그래서 이제까지 살아오던 가치관과 방식, 목표, 과거의 선택들을 돌아보면서 선택과정에서 포기했던 자신의 부분을 인정하고 다음에 올 두 번째 삶을 직접 선택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된다. 그리고 이 경험을 전환점으로 삼아 남아 있는 자원과 에너지를 자손과 사회를 위해 생성적으로 쓰게 된다(Erikson, 1976; Levinson et al., 1978). 그러나 이때 과거의 선택을 명확히 하지 못하고 과거를 수용하지 못한다면 다음에 올 인생의 새로운 구조를 구성하지 못한다(Levinson et al., 1978). 그리고 중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관점과 수용되지 않은 현재의 위험요인은 노년기의 통합이라는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Wang & Snyder, 1998). 그래서 재평가를 통한 삶의 정리는 앞으로 다가올 노년기에 일어날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를 지연, 최소화, 또는 예방을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며 남은 삶을 조망하여 다가올 노년기에 대한 설계에 필요하다(Lachman, 2004). 그리고 삶의 재평가는 이후 삶의 심리적 안녕에 중요한 근원을 제공하게 된다(Ryff, 1991).

전환점으로서의 중년기

중년기가 가지는 전환점으로서의 특성은 이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 작동하는 경로를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전생애 발달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일생 동안 발달해 간다(Baltes, 1997). 또한 인간의 발달은 시간에 따라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문화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난다(Caspi & Roberts, 1999). 이때 동일한 환경이라도 개인의 성격이나 기질과 같은 심리적 요인의 영향에 따라 적응력은 크게 달라진다. 그래서 동일한 연령대라도 생애발달의 결과는 다양한 개인차를 보인다(Lerner, Theokas, & Bobek, 2005). 상호작용의 과정에는 연령에 따른 신체적 성숙, 결혼이나 출산, 취업과 은퇴 같은 사회적 발달 과업 수행여부, 성이나 사회계층, 그리고 역사적 사건이나 시대적 요구, 그리고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사고, 이혼, 질병 등의 사건이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영향이 발달에 미치는 경로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먼저, 이전 단계의 영향이 다음 단계에 누적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두 번째는 이전단계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으나 이후의 좋은 환경으로 인해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전환(turning point)이 일어날 수 있다(Staudinger & Lindenberger, 2003). 세 번째는 이전 단계에서 위험조건들에 노출되었

더라도 개인에 따라 그 영향을 받지 않고 회복하는 결과를 보이기도 한다.

먼저, 누적적인 영향을 보면 인생초기의 부정적인 생물학적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들이 이후의 삶의 질과 발달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Poulton, Caspi, Milne, Thomson, Taylor, Sears, & Moffitt, 2002). 그래서 인생초기에 시작된 어려움은 누적되어 중년기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기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조건은 성인기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선택과 결혼,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이나 직업 세계로의 진입과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경제 조건과 무관하게 교육기회의 제한도 직업경로를 제한할 수 있다(장휘숙, 2008). Perrig-Chiello와 Perren(2005)의 연구에 의하면 초기 성인기에 전형적인 성역할, 가족의 압력, 가난 때문에 가정이나 사회에서 자신의 개인적 욕구와 목표를 충족시킬 기회를 제한받았던 사람들은 중년기에 힘든 삶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인에 따라 인생초기의 부정적인 삶의 조건이나 상황, 경험을 다르게 해석하고 다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자신들의 환경과 사회적 경로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도 한다(Perrig-Chiello et al., 2005). 많은 종단 연구들은 부모의 정신병이나 중독, 가난, 부모의 이혼과 학대 등의 위험요인에 노출된 아동·청소년들의 삶의 경로를 추적하여 아동기나 청소년기의 부정적 경험이 중년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Clausen, 1993; Vaillant, 1990; Werner & Smith, 2003). 그 결과, 매우 놀랍게도 아동기에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중년기에 심리사회적으로 잘 적응을 하고 있었다. 아동 청소년기에는 적응에 어려움이 많았던 사람들도 중년기에는 극적으로 회복했

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의 나쁜 조건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방향을 바꾼 전환점(turning point)(Rutter, 1996)과 어려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인생동안 전혀 문제를 보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잘 적응해 온 회복력(resilience)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Luthar, Cicchetti, & Becker, 2000).

전환점은 긍정적 전환점과 부정적 전환점이 있는데, 전환적 사건들로는 입학, 출가, 결혼, 사고, 질병 등이 대부분이다. 긍정적 전환점에서 주어진 새로운 역할이 부적응적 발달경로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바꾼다(Rönkä, Oravala & Pulkkinen, 2003). 긍정적 전환점은 출산과 결혼, 목표실현, 직업을 통해 생긴 경제적 여유(Stallings, Dunham., Gatz, Baker, & Bengtson, 1997), 종교적 활동, 그리고 뜻 밖에 찾아온 기회 등이 있다. 특히 결혼은 중요한 전환적 사건으로(Marks, Bumpass, & Jun, 2004), 사람들의 행동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킨다(Diener, Gohm, Suh, & Oishi, 2000). 남성은 군복무와 직업, 여성은 직업, 결혼 등 의미 있는 관계에서의 변화가 주요 긍정적 전환점이 된다(Clausen, 1995). 한국의 30대 성인 남녀는 결혼과 취업, 그리고 출산이 가장 중요한 전환적 사건이었으며, 30대가 아닌 남성들은 군복무와 대학생활, 여성들은 가족구성원의 죽음과 대학생활이 주요한 전환점으로 나타났다(장휘숙, 2008). 부정적 전환점은 주로 대인관계 문제나 자신과 관련된 실패나 파산, 질병, 그리고 가까운 사람의 죽음과 같은 상실을 포함한다(Brammer, 1992; Rönkä et al., 2003).

한편, 이전의 단계에서의 위험요인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중년기에 성공적인 발달을 하는 회복력도 있다. Werner 등(2003)은 1955년 Kauai섬에서 최소한

한가지의 위험 요인(예를 들면, 산후 스트레스, 가난, 물질 남용, 또는 가족 중에 정신병자가 있었다)을 갖고 출생한 전체 아동의 발달적 경로를 조사했다. 이 연구에서도 중년기에 이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적인 적응과 높은 심리적 건강을 유지하고 있었다. Ryff, Singer와 Seltzer(2002)는 여성들의 삶의 역사(life history)를 조사하는 종단연구를 통해 중년기에 회복력을 보이는 경로들을 밝혔다. 회복력은 심리적 및 사회적 두 가지 차원에서 드러났다. 심리적 차원은 순한 기질, 자아존중감, 자기통제감, 주도성, 자율성과 같은 성격요인과 청소년기의 대처방식과 적응 능력 등의 심리적 자원이었다. 특히 성격은 중년기에 과거를 긍정적으로 재구성하여 심리적 행복감을 느끼는 것과도 강력한 관련이 있었다(Perrig-Chiello et al., 2005). 사회적 차원은 부모의 좋은 양육이나 가족 이외의 지지적인 대인관계였다.

연구의 필요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년기의 삶의 재평가는 과거의 선택을 확인하고 미래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중년기에 이전의 삶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재평가 과정은 미래에 다가오는 노년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은 고통스런 성찰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중년들이 재평가에 참여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다가올 노년을 맞게 되는 중년기 사람들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이해하고 또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와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년기 이후 여성은 더욱 주도적으로

되어 자녀, 부부, 노부모, 친구들과의 관계를 이끌어 가는 핵심이 된다. 더구나 중년기 전업주부의 경우 양육역할의 감소나 종료, 남편의 사회생활의 증가나 종료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아내나 어머니의 역할을 통해 자신의 정체감을 찾을 수 없게 된다. 어머니나 아내의 역할을 통해 더 이상의 보상이 없기 때문에 자신만의 정체감을 찾고자 하는 욕구와 그에 따른 갈등에 직면할 수도 있다(김경신 등, 2001; Levinson et al., 1996). 그러나 급격히 변화하고 핵가족화 된 현대사회는 가족으로부터 심리적 안정을 찾기 때문에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가족의 심리적 안정의 중심이 되는 전업주부의 심리적 건강은 가족 뿐 아니라 가족의 사회생활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김경신 등, 2001; 변외진, 김춘경, 2007).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중년기 전업 주부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심리적으로 건강한 현재와 노년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 필요가 있다(김경선, 성승연, 2012).

그동안 국내에서 진행된 중년 연구는 대부분 현재에 초점을 맞추어 심리적, 인구학적 변인과 중년기의 안녕감이나 삶의 만족과의 관련성을 양적연구 방법으로 탐구해 왔다. 예를 들면 중년기 여성의 역할, 성역할태도, 스트레스, 결혼만족도, 생활사건, 취업, 사회적 지원, 자아정체감, 폐경, 사회참여 등의 변인과 위기감, 우울 등의 정신건강이나 스트레스 대처양상, 삶의 만족도와와의 관계 등을 살펴보았다(김경신 등, 2001; 변외진 등, 2007; 이복희, 박아청, 이경혜, 2010; 이경혜, 김언주, 2001; 전경구, 김교현, 2003; 조금숙, 조증열, 2004; 조희선 등, 2003). 그런데 삶의 과정은 다양한 맥락 속에서 볼 때만 충분한 이해가

가능하다(Elder & Shanahan, 1998). 그래서 한 시점에서의 평균적 변화를 조사하거나 비교하는 양적연구 이외에 질적 연구나 종단적 관점이 필요하다(Lachman, 2004). 국내에서 진행된 질적 연구는 현재에 초점을 맞추어 일상의 삶을 통한 삶의 질을 다루었다(김기범, 차영란, 전경숙, 2007; 장재윤, 유경, 서은국, 최인철, 2007). 또한 중년의 삶의 역사를 조망한 연구는 치료적 개입에 관한 최근의 연구가 유일하다(김경선 등,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급변하는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살아왔으며,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을 정체감의 중심으로 가지고 살아 온 한국 중년의 전업주부들의 인생의 재평가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삶에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회문화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경험하였는지,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하여 포괄적인 이해를 하고 삶의 재평가의 중요한 구조와 그 내용을 파악하고자 한다. 전업주부는 살아온 문화나 사회적 맥락이 남성이나 취업주부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전업주부의 재평가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구조와 내용이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이은정, 1997). 그래서 이 결과를 중년기 전업주부의 삶의 재평가를 위한 향후 교육이나 상담적 개입에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첫째, 중년 여성들의 삶의 재평가를 구성하는 주요 단계의 보편적 주제들과 내용을 파악하여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인생초기부터 중년기까지의 삶의 과정에 대한 개인차 유형을 분류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각 유형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전환적 사건과 현재를 수용하는 힘이 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방 법

연구 참여자 및 질문

Rubin(1979)에 의하면 중년기 여성은 결혼 후 10여년 이상이 경과한 중년기에 이르러 자신의 정체성이 더 이상 아내나 어머니의 역할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독자적인 자신을 찾고자 하는 욕구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참여자는 중년의 전업주부로서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하고, 막내 자녀가 고등학생 이상인 경우로 하였다. 연구자의 입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현상학적 연구방법에서 적절한 연구대상자의 수를 10명 내외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14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참여자의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었다. 자료수집은 성인발달과 삶의 재평가에 대해 강의와 훈련을 받은 심리학과 학생들이 중년기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반구조화 질문지를 통해 면접을 하였다. 면접자와 참여자 간의 라포는 수집되는 자료의 풍부함과 질적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한경혜, 2004), 가족이 아닌 친숙한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면접 회기에 앞서 참여자들과의 사전 만남에서 연구의 목적과 사생활이 보호됨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했다. 면접내용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모두 녹음되었으며 녹음한 후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면접 시간은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

질문지는 관계적 측면, 심리적 측면, 경제적 측면 등에 관한 것으로 구성되었다. 질문의 내용은 크게 결혼하기 전까지와 결혼 이후의 경험으로 나누었다. '결혼 전까지의 삶에 대해

표 1.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

참여자	연령(세)	학력	자녀(명) /막내연령	월평균 가계소득	현재 건강	종교
A	49	고졸	2(23세)	301-400만원	평균 이상	기독교
B	49	대졸	2(22세)	301-400만원	아주 건강	천주교
C	46	대졸	2(21세)	500만원 이상	아주 건강	없음
D	61	대졸	2(23세)	201-300만원	평균	천주교
E	46	대졸(결혼 후 줄)	2(15세)	301-400만원	평균 이상	천주교
F	47	고졸	1(22세)	201-300만원	아주 건강	불교
G	55	대졸	2(16세)	401-500만원	평균 이하	천주교
H	52	대졸(2년제)	2(23세)	401-500만원	평균	천주교
I	48	대졸(2년제)	3(17세)	301-400만원	평균	없음
J	53	고졸	2(대학졸)	201-300만원	평균 이하	기독교
K	55	고졸	2(30세)	201-300만원	평균	기독교
L	58	고졸	2(32세)	101-200만원	평균 이하	없음
M	50	대졸	2(11세)	500만원 이상	평균이상	천주교
N	47	대졸	3(20세 이상)	500만원 이상	평균	천주교

서는 자신의 성격과 꿈 등 일상생활 전반에 대하여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였다. 환경에 관하여는 ‘부모님과 형제 관계, 사회경제적 형편, 그리고 전반적인 분위기’ 등에 대해 질문했다. ‘결혼 전까지의 삶에서 언제, 무엇이 행복(또는 불행)하게 했는가’를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결혼과 그 이후의 삶의 경험에 대해서는 ‘언제 어떻게 왜 결혼을 하게 되었는가’와 ‘결혼생활에 대하여 전반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무엇 때문에 만족하는지’를 이야기하도록 하였으며 ‘결혼 후 지금까지 언제 무엇이 어떻게 행복(또는 불행)하게 했는가’,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자유롭게 이야기 하도록 하였다.

자료분석

첫째, 연구 참여자들의 회고적 삶의 이야기를 분석하여 삶의 재평가의 구조와 내용을 파악했다. 분석에 앞서 녹음된 참여자들의 진술을 들으며 참여자들이 표현한 언어 그대로 필사했다. 분석은 Giorgi(1994)가 제시한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참고하여 제1 연구자와 성인발달과 질적 연구방법을 공부한 석사 2명, 박사과정 2명이 독립적으로 1차 내용분석에 참여했다. 질적 연구방법론에서 제안하는 것처럼(조흥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2005), 이 과정에서 한 명의 연구자가 내린 주요 의미군, 주제와는 다른 결과가 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치며 다양한 대

안들을 확인했다. 도출된 연구결과가 연구 참여자들의 최초 진술내용과 일치하는지를 반복적으로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공동연구자들 간의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분석과정은 먼저 ‘전체를 인식’하기 위해 참여자들의 진술이 필사된 내용을 여러 번 읽으며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했다. 참여자들의 연대기적 삶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후, 그 내용에서 학문적 관점에서 의미의 전환이 일어난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의미 있는 진술들을 구별해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진술들을 중요한 의미군들로 묶었다. 의미군들은 가능한 참여자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의미군들을 포괄하는 주제로 범주화하였고, 그 결과를 평가영역별로 제시했다(표 2~4 참조). 둘째, 인생초기부터 중년기까지의 삶의 경로를 유형으로 분류하고, 마지막으로 인생초기부터 중년기까지의 경로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나 사건들을 파악했다. 누적적 영향을 미친 요인, 회복력을 가져오는 요인이나 전환점을 만들어 낸 사건들을 파악했다.

결 과

재평가의 구성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중년기 전업주부들이 삶을 회고한 이야기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삶의 이야기는 크게 아동기·청년기, 성인초기, 성인중기로 분류했다(Levinson et al., 1978). 그 결과, 아동청소년기는 9개, 성인초기 8개, 성인중기는 11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각각의 주제들은 연령에 따른 보편적 발달과업과 그 당시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이나 가정환

경이나 시대적, 문화적 특성 등 사회적 맥락이 반영되어 있었다.

아동·청소년기

아동청소년기에 대한 참가자들의 진술은 크게 3가지 주제로 모아졌다(표 2 참고). 가정 환경의 경우 대부분 참가자들은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성장했으며, 성격적으로는 부모의 의견 특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온순한 특성을 보였다. 진로의 경우도 대부분은 자신의 뜻을 펼치기보다는 부모의 뜻을 따랐다.

가정 환경. 일반적으로 어린 시절의 경제수준이나 교육수준은 이후의 발달 경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소수(참여자 B, C)를 제외하고 대부분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하였다. 어린 시절의 경제적 여건과 남성중심의 가치관은 이어지는 다음 단계들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 상위학교 진학의 기회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가난이라는 시대적 환경에서는 생존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였고, 참가자들은 부모가 자신의 가난의 대물림을 끊기 위해 자식의 교육을 위해 희생했음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래서 자신들의 양보와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어린 시절의 어려움이 자신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지는 않았다. 하지만 성차별에 대한 서운함을 표현하기도 했다.

“아버지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셔서 먹고사는 것도 힘든 데 공부까지 했어요. 어머니는 모아 둔 돈과 패물 같은 걸 다 팔아서 공부시켰죠.” (참여자 H)

“(중략)…아들이랑 딸을 차별했어. 특히

표 2. 아동·청소년기 삶의 경험에 대한 진술 분석

평가 영역	주제	의미군	진술문 예
가정 환경	가난의 극복과 교육 이 최우선 과제	가난, 자식을 굶기지 않 아야함, 억척스러움, 공 부, 부모님이 못 배운 한	“자식 굶길까봐 억척스레 일하였고, 당 신들이 못 배운 한을 우리에게 안 남기 겠다고 엄청 신경을 썼어.” (참여자 A)
	가난한 시대의 행운 아	풍족, 여유, 개인 부모	“다 어려운 시기였지만 나는 행운아였지 (참여자 B)”
	희생적인 부모의 노 력에 감사	자식에게 희생적	“자식에게 어려운 모습을 안 보이고...항 상 희생적이었지.” (참여자 K)
	가난한 환경에서 부 모의 역할을 대신함	어려운 살림, 많은 가족, 부모의 무관심, 맏딸, 동 생들	“살림은 누나인 내가 도맡아야 했고, 동 생들 다 키우다 시피...난 당연히 해야 하는 줄 알았지.” (참여자 A)
성격과 가치관 형성	시대가 요구한 성격	내성적, 남을 의식, 싫은 내색 못함	“남을 의식하고...내성적인 건 예전에는 좋은 성격이었잖아.” (참여자 L)
	부모님께 내 뜻을 표현하지 않는 착함	엄한 부모, 내 생각을 말 하지 못함, 착함	“착하고 참고 인내하고 말대꾸나 반항할 줄 몰랐어.” (참여자 G)
	온실 속 화초	부족함을 못 느낌, 모험 에 대한 두려움, 자신감 없음,	“구지 부족함을 못 느꼈기 때문에 안주 하고 모험을 두려워했던 것 같아.” (참여 자 B)
	환경과 가치관 형성	좌절감, 열심히 공부해야 함, 돈의 중요성을 깨달 음	“아버지가 또 실패를 하셨어..공부를 열 심히 해서 돈 신경 쓰지 말고 살아야겠 구나.” (참여자 C)
진로 선택	딸이기 때문에 양보 해야 함	아들 딸 차별, 여자, 양 보, 순종	“나는 결국 취업반을 택했고...아무래도 만이고 누이인 내가 양보를 해야 할 것 같았어. 나는 여자이기도 했고.” (참여자 A)
	여자는 현모양처가 되어야 함	집안, 부모님의 바램, 참 한 사람과 결혼, 여자가 무슨 대학	“부모님이 원하시는 참한 사람과 결혼하 는 것을 생각했지. 대학도 결혼하기 위 한 정도로 생각했지.” (참여자 B)
	부모의 뜻을 거스른 부담과 피나는 노력	노력, 부모님께 떳떳함	“대학교에 가서 극성스럽게 공부를 했 어. 대학졸업, 취업, 부모님한테 굉장히 떳떳했어.” (참여자 C)

엄마가...매일 오빠만 고기 구워주고.” (참
여자 D)

성격과 가치관 형성. 대부분 참여자들의
어린 시절 성격은 소극적이고 내성적이면서

착했다. 이는 그 당시 사회적으로 그러한 성격이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사회화된 것으로 보였다. 개인에 따라 부모로부터 심리적인 독립과 자신의 꿈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의 개인차가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따랐다. 이들은 부모의 성격이 너무 강했거나 매우 존경스러웠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고 회고했다.

“쾌활하고 활동적이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성격인데 갑자기 아버지의 거듭된 실패로 말이 없어졌지, 콤플렉스가 있었나 봐.” (참여자 C)

“미대에 가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반대해서 못 갔어요. 그냥 알았다고 취업을 했거든요.” (참여자 E)

진로선택. 참여자 대부분은 어려운 가정형편에 따라 진학이 어렵거나 대학진학 시 자신이 원하는 학과나 진로에 대해 아버지의 반대애 부딪혔을 때 순종했다.

“내 꿈은 선생님이 되는 거였어. 하지만 아래로 남동생이 셋이나 있는데 그 애들 공부하려면 내가 대학을 갈 수가 없지...지금도 후회는 없어.”(참여자 A)

“나는 여자 파일럿이 꿈이었었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영문과가 좋을 것 같았어..우리 엄마가 여자가 무슨 대학을 가냐고 반대해서 막 울고불고 했어.” (참여자 D)

성인초기

표 3에서 보듯이, 참여자들의 배우자 선택과 방법, 그리고 결혼과 함께 시작된 결혼초기 생활을 돌아보았다. 참여자들은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직업과 결혼 등을 통한 성인기 역할을 시작했다. 교대를 졸업하고 교사가 되거나(참여자 H) 영문과를 나와 중학교 교사가 된(참여자 D)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혼할 때 이미 갖고 있던 직업을 포기하고 Levinson (1996)이 제시한 전통적 가정주부 형상을 쫓았다.

배우자 선택과 결혼. 결혼을 하게 된 이유는 당위적인 어른들의 뜻에 따른 ‘수동적 결정’, 부모와의 갈등이나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도피’, 그리고 자유연애에 의한 ‘사랑’으로 분류되었다. 6명의 참여자들은 사람과 무관하게 혼기가 되었기 때문이거나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수단으로 어쩔 수없이 결혼을 선택해야 했다. 그들은 자신의 선택을 어떤 식으로든 합리화했다. 자신의 진로선택에 반대한 부모에 대한 반항이나 도피의 수단으로 결혼을 선택했던 2명도 자신의 선택을 합리화하려고 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포기하거나 첫 아이를 낳은 후 직장을 퇴직하고 역시 전통적 가정주부형상을 쫓았다.

“남동생이 결혼한다고 해서 급하게 중매를 했지..(중략) 남편이랑 인연이더라고.” (참여자 G)

“대학교 2학년 때 만나서 3, 4년은 연애했던 것 같아. 첫 인상이 좋았지. 자상하고, 똑똑하고...그 사람의 가난은 내가 커버할

표 3. 성인초기 삶의 경험에 대한 진술 분석

평가 영역	주제	의미군	진술문의 예
배우자 선택/ 결혼	결혼을 요구하는 상황	혼기, 어머니 맘에 드는 신랑감, 남동생의 결혼	“23살이 넘으면 시집을 못 간다면서 여 기 저기 선을 보게 하셨어.” (참여자 A)
	한번 정한 사람	그냥 결혼, 한 번 정하 면 그냥 살아야 함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었지..한 번 정한 사람이니까 그냥 산거지.” (참여자 J)
	연애결혼	연애, 행복, 결혼, 사랑, 능력, 자신감	“부모님의 반대가 심했지만 연애하면서 행복했지, 이불 뒤집어쓰고 울어서 결국 성공했지.” (참여자 D)
	중매결혼	착함, 인물, 외모, 듬직 함, 불쌍함, 운명, 뿌리 치지 못함	“자꾸 만나다 보니까 착하잖아(참여자 I)” “이상형도 아니고..그래도 뿌리치지도 못하고..운명인가 싶기도 하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었는데.” (참여자 B)
결혼 초기 부부 적응	배우자의 성격과 현 실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	후회, 노력, 너무 착해서 탈, 반대 성격, 결혼마 찰, 내 성격이 변함	“처음에는 좀 후회했지만 그때부터 엄청 노력했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기적이 야.” (참여자 D)
	남편을 의지	단점을 받아 줌, 돈을 벌어다 줌, 성실함, 살아 보니 괜찮음	“나의 성격을 남편이 다 받아줬어요. 벌 어다 주는 거 먹고(참여자 K)” “처음에는 흡족하지 않았는데 살고 보니 그렇게 나 쁘지 않아요.” (참여자 H)
가족 관계	혹독한 시집살이	시집식구와의 갈등, 부 부갈등, 시집살이, 지금 같으면 도망, 결혼 전의 꿈은 포기	“시집살이가 힘들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현실은 생각 이상으로 혹독하고 힘들었 어요.” (참여자 A, B)
	친정을 의지함	친정어머니, 친정의 도 움, 이겨나감	“친정에서 여러모로 도와주고 보살펴 주 셔서 이겨나갈 수 있었지.” (참여자 A)

수 있었지.” (참여자 D)

“반항하기 위해 졸업하고 바로 시집을
갔지.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었지요.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빨리하게 되고.” (참여자 I)

결혼초기 부부 적응. 연애결혼을 한 참여
자들은 비교적 남편의 성격에 적응이 쉬웠던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중매결혼을 한 참여자
들은 남편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처음에는 배우자의 나쁜 점이
많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좋게 보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배우자에 대한 느낌을
‘매우 좋다’, 또는 ‘좋다’ 대신 ‘나쁘지 않다’로
표현했다.

“우리 남편이 갑자기 각혈을 하는 거야.(중략) 그때부터 엄청 노력했지. 지금 이렇게 건강한 것은 다 기적이야.” (참여자 D)

“너무 착해서 탈이지, 그래서 손해보는 게 많지, 그러다 보니깐 내가 악착같이 변했지. 나도 이런 성격이 아니었는데...” (참여자 G)

가족관계. 참여자들은 시집과의 관계에서 경제적인 지원을 해야 하는 게 가장 어려웠다고 진술했다. 연애결혼의 경우 중매결혼에 비하여 결혼 초기에 시집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덜 겪은 것으로 보였다. 시집식구들이 더 좋았다고보다는 이들이 선택과정에서 보였던 것처럼 문제에 대처하고 수용할 만한 힘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이들은 대체로 남편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한편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부모의 뜻대로 결혼을 선택한 참여자들은 착하고 순종적인 여자로 길들여진 삶을 살아왔는데, 결혼 후 혹독한 시집살이에서 남편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참으며 살았다. 여러모로 시집살이가 어려울 때 친정의 도움을 받으며 이겨나가기도 했다.

“시댁은 들볶는 스타일. 그 당시엔 재미있게 했어. 석 달 시집살이 하고 나니까 43kg에서 39kg이 되었어. 그래도 굉장히 재미있었어.” (참여자 C)

“돈을 벌어서 시어머님께 드리면 큰 아들한테 가는 거야. 배고플 때도 많았고 고생 많았는데, 지금 같으면 도망갔을 거야.

그래도 내가 다 극복하고 나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았지.” (참여자 J)

“결혼 전 내가 꿈꾸던 일들은 거의 생각할 수가 없었지. 중위 월급으로 아이와 셋이 살아야 했고 시어머니 생활비에.. 난 거의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았어.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지기가 하더라고.” (참여자 A)

성인중기(중년기)

표 4에서 보듯이, 이 시기는 첫 자녀 출산 후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로 분류했다. 참여자들은 자녀, 시집살이, 배우자, 무관심했던 자아 찾기, 그리고 현재의 경제적 상태에 관해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나빠진 건강에서 오는 자신감 상실과 불안, 그리고 신앙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 온 이야기를 하였다.

자녀를 통한 보상/좌절.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지나 온 삶이 매우 고통스럽고 힘들었더라도 현재는 행복하다고 했다. 남편에게는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자녀를 통해 보상을 받는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자녀로 인해서 행복했고, 자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복이며, 자식이 다 자란 것에 만족감을 느끼며 자녀들에게 고마워했다. 오직 참여자H만은 자녀를 통한 만족감과 의미를 찾지 못했다. 그는 자녀들을 외형적으로 잘 성장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현재 자식들마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두 아이가 나무 자랑스러워 (중략) 두 아이가 내 꿈을 대신 이루었다고 생각해, 덕분에 나는 걱정할 것이 없어서 행복해.” (참여자 J)

표 4. 성인 중기(중년기) 삶의 경험에 대한 진술 분석

평가 영역	주제	의미군	진술문의 예
자녀	자녀에 대한 기대의 좌절	내 뜻대로 안됨, 우울함, 희망 없음	“자식 놈들이 저렇게 내 뜻대로 안 해주니까.. 우울하고 희망이 없어.” (참여자 L)
	자녀는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열매	만족, 건강하고 착함, 애들 다 큰 게 돈 번 것, 내 꿈을 대신 이루어 줌	“만족한 건 한 가지 있어. 자식들이 있고 자식들도 생활 잘하고 있고, 자식들을 잘 얻은 것 같아서...보배이고 훈장 같아.” (참여자 G)
경제 정서적 안정	노후대책을 하지 못하여 불안함	노후대책, 자식들이 떠남, 모든 것(능력)이 감소	“몸도 아프고 노후대책으로 뭇 돈을 준비해 놓은 것도 없고 자식들은 다 커서 떠나가고...모든 게 다 감소되고..돈 벌 길도 없고.” (참여자 L)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됨, 더 이상의 욕심을 버림	충족하지 않지만 부족하지도 않음, 이대로만 가면 좋겠음, 나보다 못한 사람도 많음	“그다지 큰 문제없이 살았고..내 복이다 생각하고 욕심부리지 않고 살려고 생각해. 남편이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어서 불안한 면이 없지 않지만 짐 없고 힘든 사람이 많은데.” (참여자 F)
가족 관계	시댁과의 관계 변화와 안정	살만하니 시어머니 돌아가심, 나도 며느리 불 나이, 억울하고 슬픔, 시집살이 악몽 끝, 시집이 최우선이라던 친정엄마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다 부질없는 거야, 계실 때 더 잘해드렸으면 생각하지, 나도 이제 며느리 불 나이잖아.” (참여자 L)
배우자 수용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남편을 수용하게 됨	처음에는 이해 못함,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짐, 미운정 고운정, 이해하려고 노력	“내 마음을 몰라줄 땐 한없이 밍기도 했지만, 미운정 고운정이라고, 이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참여자A)” “남편에게 못 받는 부분은 일찌감치 포기를 했어요.” (참여자 B)
	결혼이 생각과 달라 힘들었음	결혼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다, 지금 같으면 달랐을 것, 이해하려고 함	“결혼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지. 이렇게 고생하고 살 줄 알았나..여자로서의 삶은 행복했다고는 할 수 있지..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그냥 결혼 안하고 살았을 걸...” (참여자 L)
	남편이 나를 존중, 만족하고 때때로 연민을 느낌	남편이 내 뜻을 존중, 남편을 이해, 일상에서 행복을 느낌, 불쌍하고 미안하고 감사함	“남편이 모든 걸 다 내게 맡기고 하자는 대로 해 (참여자 F)” “에 아빠도 이젠 몸이 힘들어. 너무너무 불쌍해, 안타깝고, 미안하다는 생각도 들고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고.” (참여자 J)
삶의 수용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	불안하고 우울, 누구나 다 시련은 있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음, 내게도 문제가 있음	“몸이 힘들기도 하지만 나보다 더 심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감사하고(참여자 J)” “돌아보면 고생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행복했던 것 같아.” (참여자 D)
건강/ 종교	건강을 잃고 나니 자신감이 없어짐	건강 잃음, 자신감 잃음, 불안감 엄습	“건강이 안좋아 지니까 자신감을 잃게 되고 안 된다는 것이 실감나더라고(참여자 J)” “더 아프지 않지만 불안이 엄습해 올 때가 있어.” (참여자 K)
	어려움을 신앙으로 이겨가고 있음	불안, 신앙으로 견뎌, 기도, 감사	“건강이 안좋아 지니까 자신감이 없어지고..불안할 때는 기도하면서 이기지, 늘 감사하고.” (참여자 K)

“내가 못 이룬 꿈 다 시키고 싶었지. 아이들 속 안 썩이고 커준 것이 감사해. 공부도 잘해줬어. 그 어렵다는 외고도 척 붙여주고.” (참여자 A)

“젊어서 너무 어른들 말로 쟁가 빠지게 일을 해서 골병이 든거야...그러니까 몸이 완전히 망가졌어(중략). 자식 놈들이 저렇게 내 뜻대로 안 해 주니까..좀 우울하기도 하고..희망이 없잖아.” (참여자 L)

경제적 안정과 정서적 안정. 중년기 삶의 평가에서 경제적인 안정은 심리적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느끼는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현재 자신의 삶을 수용했으며 삶에 대한 통제감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 부유한 환경에서 성장했고 최근까지 교사, 대학 강사 등의 취업활동을 했던 참여자들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비해 경제적 상황이 더 좋은 편이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것이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 부부는 너무 많이 가졌다고 말해.” (참여자 C)

“연금이 나오고 경제적으로도 풍족하지는 않지만 부족하지도 않고 안정되어 있고 그렇지, 행복하다고 느끼죠.” (참여자 H)

반면 현재 경제적 안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참여자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그로 인해 우울해 했다. 그러나 정서적 위기감을 느낄만한 상황에 있는 대부분의 참여자들에게 자녀에 대한 만족은 위기감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의 결혼만족도는 보통이야. 딱 건 아니고 물질적인 게 못 받쳐줘서 그래(중략) 결혼한 후 지금까지 행복을 느끼게 한 요인은 아이들, 애들이 속 안 썩이고 커준 것이 너무 감사해.” (참여자 J)

시댁과의 관계 변화. 시집살이로 크게 고통을 당했던 대부분의 참여자는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자유로움을 느꼈다. 자신을 괴롭히던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시누이 등이 결혼하여 자신을 이해하게 된 경우 심리적인 안정을 찾았다. 그리고 과거의 갈등을 부질없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더 이상 원망보다는 그때 편안하게 더 잘해드리지 못했음을 후회했다. 하지만 억울하고 혹독한 시집살이를 참아내는 데 친정어머니의 가르침에 대해 원망을 하기도 했다.

“고추당초보다 맵다는 시집살이도 이제 내 뉘이다 할쯤에 시어머니가 소천하셨는데 살만하니 가신게 억울하고 슬프더라고. 그래서 부모님은 기다려 주지 않는다고 하나봐.” (참여자 A)

“마지막에 엄마가 부탁한 게, 시집살이를 최우선으로 두라셨거든. 나는 그 말씀을 가지고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를 ‘바보, 재 바보 아니야’라는 식으로 내가 고생하는 걸 당연하다는 식으로 보시더라고.” (참여자 C)

배우자에 대한 태도의 변화와 관계만족.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이전에 남편에게서 만족

하지 못했던 면을 이제는 체념하거나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연애결혼을 했던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결혼 후 남편과 치열한 갈등을 겪기도 했으나 그 과정을 거치며 현재는 동등한 관계를 이루어가고 있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자녀들이 독립하고 난 후 남편과 동반자로서의 삶을 기대하고 있었다. 이들은 젊은 시절 고생은 했지만 현재는 자신을 인정해 주고 믿어주는 남편에게 정서적으로 만족해하고 있었다. 대부분 연애결혼을 한 참여자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남편과의 관계가 독립적이면서 서로를 인정해 주고 있었다. 이들은 현재의 부부관계에 만족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이해 못하고 아등바등 대다가 나이가 먹고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니 아무것도 아니거든.” (참여자 I)

“남편이 모든 걸 다 내게 맡기고 하자는 대로 하니까 만족해요.” (참여자 K)

“나이 들면서 많이 거들어 주고 그런대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건 다 할 수 있게 해주거든.” (참여자 A)

“이제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고..속상한 적도 많았지만 그래도 결혼 자체를 후회하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이전 일상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참여자 E)

자아정체감과 삶의 수용. 본 연구의 참여자 대부분은 중년기 정체감으로 인한 위기를 분명하게 드러내지는 않았다. 전업주부들은 현재의 주역할(어머니와 아내역할)에서 얻

고 있는 좋은 점(예를 들면, 자녀들이 잘 성장해 준 것, 남편의 변화, 경제적 안정)을 보면서 긍정적으로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몇몇 참여자는 청소년기 전후에 독립적이지 못했던 사실에 대한 후회와 함께 정서적 위기를 심하게 겪으면서 이전과는 다른 변화를 추구하고 있었다. 그 동안 소홀히 했던 자신만의 활동을 통해 자아의 욕구를 추구하고 있었다. 특히 순종적이고 결혼이라는 중요한 선택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던 두 참여자(B, G)는 어려움이 없었던 젊은 시절의 온실 속 화초와 같았던 삶을 매우 안타까워했다. 이들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지 못했던 과거를 후회하면서 현재 배우자와의 관계를 수용하기 보다는 체념하거나 또는 회피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들은 뒤늦은 후회와 함께 잃어버린 자신의 삶을 찾으려 하면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모든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선택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며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했다. 시댁과의 갈등이 많았지만 우유부단한 남편은 큰 힘이 돼주지 못했고, 자녀들을 낳아 키우면서 만족감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종교활동과 봉사활동을 하며 힘을 얻었고, 중년기로 들어서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참여자 B)

“가장 행복했던 때는 부모님 밑에서 걱정 없이 사랑받고 살았을 때인 것 같아요.” (참여자 B)

“억울하고 분한 순간들도 있었지만...다

이겨낼 수 있었지. (중략) 다 그 정도 시련은 다 갖고 사니까.” (참여자 A)

“남편에게 못 받는 부분은 일찌감치 포기했어요. 물론 어떻게 보면 바깥으로 도피한 건지는 모르지만, 또 다른 보람을 얻기 위해서 사회봉사활동을 좀 일찍 시작했고, 거기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참여자 B).

그러나 대조적으로 결혼생활에서 극심한 굴곡이 없었거나 현재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은 참여자들은 자아에 관한 이야기를 별로 언급하지 않았다.

건강 상실과 신앙심. 큰 수술을 하는 등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긴 참여자들은 자신감을 잃게 되면서 성격의 변화가 오거나 신앙심이 깊어졌다. 이들은 건강의 상실에서 오는 두려움과 현실적인 여러 어려움을 신앙을 통해 극복했다. 자신의 건강은 다른 문제와는 달리 스스로는 어찌해 볼 수 없는 문제라서 절대자를 의지하려는 경향이 증가했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여러 현실을 신앙을 통해 더 깊이 수용하게 되면서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힘들기도 하지만 나보다 더 심한 사람들도 있으니 감사하지..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건강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참여자 K)

삶의 유형

본 연구에 참여한 전업 주부 14명 중 1명을

제외한 13명은 객관적 상황이 좋건 나쁘건 현재를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었다. 연구자들은 14명 참여자의 삶의 평가를 인생 초기와 현재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에 근거하여 유형으로 분류했다. 이 과정에서 인생초기는 아동·청소년기에 의미 있게 기억하는 경제적 여건과 부모에 대한 평가를 종합하고, 현재는 경제적 상황,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건강을 고려한 전반적인 평가를 종합했다. 인생의 초기와 현재의 상태를 ‘상, 중, 하’로 나눈 후 두 시기를 조합하여 9개의 유형으로 분류했다. 좋아진 경우는 5사례, 큰 변화를 느끼지 않는 경우는 6사례, 더 나빠진 경우는 3사례였다. 좋아졌거나 나빠졌다고 느끼는데 기여한 전환적 요인들과 현재를 수용하게 하는 의미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삶의 유형과 전환적 사건, 의미요인들을 표 5에 함께 제시했다.

전환적 사건

변화가 있었던 8명의 참여자 중 한 참여자 J를 제외하고 모두 결혼과 함께 삶의 방향이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참여자 J는 스스로 현재의 삶을 그런대로 괜찮다고 말하고 있었으나 지나온 삶을 직면하여 구체적으로 보지 않고 회피하고 있었으며, 막연히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결혼에 의한 삶의 전환은 인생초기의 교육이나 경제적 조건, 그리고 성격이나 정체감 여부와 무관한 것으로 보였다.

현재의 삶의 의미

다음으로 참여자들이 현재 자신의 삶을 수용하기 위해 의미를 부여하는 요인들을 파악했다. 삶의 의미는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표 5. 주요 발달경로와 유형분류 및 현재 상태

유형(a)	학력	인생 초기(b)	청소년기 성격	결혼 선택	현재의 삶에 대한 평가(c)	전환점/현재주요의미 (또는 불만요인)(d)	사례
LM	고졸	약간 나쁨		수동적	그런대로 괜찮음	결혼/자녀	A
LM	대졸	나쁨	정체감 없었음	연애	중간정도 좋음	결혼/ 자녀, 나를 찾음, 돈	C
LM	고졸	좋지 않음		수동적	그런대로 괜찮음	결혼/ 자녀, 결혼만족	F
LH	대졸 (2년제)	나쁨		수동적	좋음	결혼, 종교/ 자녀, 종교, 자아실현	H
LM(e)	고졸	나쁨		도피	그런대로 괜찮음	알 수 없음/ 수용적 태도	J
MM	대졸 (결혼 후 진학)	좋음		연애	일상에서 행복 느낌	없음/ 결혼, 자녀	E
MM	대졸 (2년제)	좋은편		수동적	중간정도 좋음	없음/자녀	I
MM(e)	고졸	보통		도피	그런대로 괜찮음	없음/결혼, 질병치유, 신앙, 자녀, 남편	K
HH	대졸	매우 좋음		연애	매우 좋음	없음/결혼, 역할, 건강	M
HH	대졸	매우 좋음		연애	매우 좋음	없음/자녀, 결혼, 목표성취	N
HH	대졸	매우 좋음		연애	그런대로 괜찮음	없음/ 남편건강(-)	D
ML	고졸	보통	반항적	연애	좋지 않음: 위기 상태	결혼(-)/건강, 돈, 사회적지지 부족(-)	L
ML	대졸	보통	정체감 없었음	수동적	불행한건 아닌 것 같음	결혼(-), 질병/ 자녀, 돈(-)	G
HM	대졸	매우 좋음	정체감 없었음	수동적	그런대로 괜찮고 행복	결혼(-)/자녀, 부부관계불만(-)	B

주. a: 초기/현재경험을 조합한 유형(L: Low, M: Medium, H: High)

b와 c: 참여자들의 주관적 표현.

d: (-)기호: 부정적 전환점이나 현재의 불만요인

e: 참여자의 진술에 의하면 긍정적 변화가 있었으나, 뒷받침할 만한 타당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함. 실제로는 부정적인 변화가 있었으나 방어적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있음.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찾으며 어떤 상황도 (Frankl, 1959; Reker & Wong, 1988). 삶의 의미를
견딜 수 있게 하는 안녕감의 구성요인이다 를 상실한 사람들은 존재론적 문제가 야기된

다(Frankl, 1959; Zika & Chamberlain, 1992). 중년기에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하면 중년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Jaques, 1965; Levinson, 1996) 중년기에 삶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참여자들이 현재를 수용하게 하는 요인은 자녀, 결혼, 자기 자신, 경제력, 배우자, 종교, 성공, 그리고 건강 등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L을 제외한 모든 참여자들의 공통적인 삶의 의미는 자녀였다. 자녀조차 삶의 의미로 인식하지 못하는 참여자 L은 건강의 문제, 경제적 문제, 노후준비 부족, 친밀한 관계를 통한 사회적 지지의 부족 등과 함께 심각한 위기상태인 것으로 보였다. 결혼은 중요한 전환적 사건이었을 뿐 아니라, 인생초기와 현재 간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6명의 참여자 중 4명이 현재 삶의 의미를 느끼는 요인으로 지목했을 만큼 중년의 전업주부들에게는 긍정적인 중요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효과

대부분이 가난했던 어린 시절에 특히 경제적 조건이 매우 좋았던 참여자들이 있었다(사례 B, D, M, N). 이들은 자연스럽게 대학 교육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고 비교적 좋은 조건의 배우자를 선택하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의 삶에 대해서는 만족(참여자가 D, M, N)과 불만족(B)으로 나뉘었다. 중년인 전업주부들의 주관적인 만족에는 인생초기의 조건보다는 결혼이라는 전환적 사건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쳤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 전업주부들의 회고를

통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재평가의 구조와 내용을 알아보았다. 분류는 Levinson 등(1978)의 인생의 주기에 따라 아동청소년기, 성인초기, 그리고 성인중기로 나누었다. 본 연구에 참가한 중년의 전업주부들의 삶의 재평가는 대부분 현재 삶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어서 비교적 심리적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들은 전통적 가정주부 형상을 쫓은 결과, 가족들의 삶과 자신의 삶을 동일시하면서 만족을 추구해 왔기 때문에 가족의 성취와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대한 적응은 삶의 중요한 부분이었다(Levinson, 1996). 이들은 삶의 과정에서 교육, 직업, 결혼, 자녀출산, 자녀양육 및 출가 등의 연령관련 규범적 사건들을 경험했다. 각 단계에 보편적으로 중요한 재평가의 틀과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아동·청소년기에는 가정환경과 성격, 가치관형성, 진로선택 영역에서 9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가정환경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최우선과제는 가난의 극복과 교육'이었다. 그 과정에서 '헌신적으로 희생했던 부모님', 그러한 환경 속에서 여성으로서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서 동생들을 돌보거나 살림'을 해야 했다. 성격과 가치관 영역에서는 '순종하고 남을 의식하며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는 내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고, '부모님께는 무조건 순종을 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고 살았다. 특히 청소년기의 가정환경을 인식하면서 '열등감이나 인생의 중요한 가치관을 형성했다. 진로선택의 영역에서는 '딸이기 때문에 남자형제를 위해 양보'해야 했고, '현모양처가 되는 것이 미덕'이었기 때문에 교육의 기회를 놓치기도 했다. '부모의 인정'을 받기 위해 힘써 노력했다. 성인초기에는 배우자선택과 결혼영역, 결혼적응, 결혼과 관련된 가족관계 영

역에서 8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결혼과정에서는 스스로 원해서라기보다는 ‘혼기가 차거나, 남자형제의 혼사를 위해 결혼’이라는 것을 해야 했고 크게는 ‘연애결혼’과 ‘중매결혼’을 했다. 특히 중매결혼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 배우자를 수용하기 위한 합리화를 했다.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거나 힘든 결혼 생활에도 불구하고 ‘한 번 정한 사람과 해로해야 한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참고 살았다.

결혼 적응의 영역에서는 ‘배우자의 성격과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변해온 과정을 진술했다. 한편 이전의 삶과는 달리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의지’하면서 점차로 수용했다. 결혼관련 가족관계영역에서는 ‘혹독한 시집살이’와 그 속에서 ‘친정을 의지’하며 극복한 과정들이 주제로 나타났다. 성인증기에는 자녀, 경제정서적 안정, 가족관계, 배우자, 삶의 수용, 건강, 종교의 영역에서 11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자녀는 인생의 거의 모든 것’이며 의미라고 할 수 있었다. ‘좌절되었을 때 희망을 잃는 모습’을 보였다. 경제정서적 안정영역에서는 ‘어느 정도 축적된 경제적 안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했고 ‘노후대책이 없는 경우 불안’을 드러냈다. 가족관계영역에서는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의 허탈함과 아쉬움, 그리고 남편과의 갈등 해소’가 있었다. 이 무렵 대부분은 ‘배우자를 수용’하게 되었고, 그렇지만 ‘결혼이 곧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으며 결혼생활의 고통을 돌아보았다. ‘배우자도 나이 들며 힘이 없어지니 불쌍하고, 자신의 위치와 힘이 점점 커짐에 따라 남편을 수용’하게 되었다. 전반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삶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매결혼을 한 경우, 흥미로운 공통된 반응이 있었다. 결혼초

기 배우자에 적응을 하는 과정에서 수용하면서 ‘매우 좋다’, ‘좋다’가 아니라 ‘나쁘지 않다’라고 했다. 김혜선과 이재림(2004)이 시행한 배우자선택에 관한 질적 연구에서 참여자들이 ‘이상형은 아니었죠’라고 한 반응과 유사했다. 그러나 전반적인 삶의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거나 불가능한 것은 포기하거나, 긍정적인 조건(예를 들면 자녀나 종교)을 찾아 의미를 부여하며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건강을 잃음에 따라 자신감을 잃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종교를 통해 극복’해 나간다는 주제들이 나타났다.

중년의 전업주부들의 삶의 경로와 내용에는 중요한 공통점들이 있었다. 첫 번째 공통점으로, 결혼은 한 사람의 여성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환적 사건으로 나타났다. 결혼은 중요한 전환적 사건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킨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반영했다(Diener et al., 2000; Lansford, Antonucci, Akiyama, & Takahashi., 2005). 그러나 선행연구에 의하면 결혼은 대체로 긍정적 전환점인데(Marks et al., 2004; Stallings et al., 1997),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전환사건이기도 했다. 부정적 전환점은 주로 대인관계 문제나 자신과 관련된 실패나 파산, 질병, 그리고 가까운 사람의 죽음과 같은 상실을 포함하기 때 문에(Brammer, 1992; Rönkä et al., 2003) 마음이 나 가치관이 맞지 않는 배우자나 시집식구였을 경우에 대인관계의 문제, 자신의 실패와 관련지어 결혼이 삶의 질을 낮추고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결혼은 전환적 사건이 아닌 경우에도 대부분 전업주부들에게 삶의 의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숙(2010)에 의하면, 한국의 중년의 삶의 의미는 가족(남편과 자녀), 자기가치감, 종교, 경제적 안정이었

는데, 본 연구에서도 결혼을 통한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은 중요한 삶의 의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중년기 전업주부들에게 있어서 결혼은 매우 중요한 전환점으로 나타났다(Clausen, 1995; Diener et al., 2000; Lansford et al., 2005; Marks et al., 2004). 두 번째 공통점으로, 전업주부들은 다양한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다양한 삶의 의미를 가질수록 심리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의미치료는 존재적 목적을 잃고 심리적 문제를 가진 사람에게 다양한 삶의 의미를 찾게 한다(Frankl, 1959). 전업주부들에게 삶에서의 고통스런 문제들-예를 들면, 배우자와의 관계,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자녀는 긍정적인 삶의 의미였다. 이렇게 자녀를 비롯한 다양한 삶의 의미를 갖고 있음으로 해서 전업주부들은 자신의 삶을 수용하고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Frankl, 1959; Levinson, 1996). 세 번째 공통점으로 여성들은 대부분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을 발달시켜왔으며, 진로나 결혼과 같은 성인기의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 자신의 뜻 대신 부모의 뜻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자신의 성격이나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이는 서구의 연구결과와는 다른 점인데(Perrig-Chiello et al., 2005), 이는 당시의 중요한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유교적 가치관에 따라 부모님께 순종하는 효와 남성중심의 가치관이 지배했기 때문에 어려운 경제적 지위나 기회의 박탈, 강요 같은 부정적 요인을 쉽게 수용할 수 있었고, 따라서 이것들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중년기 전업주부들은 대부분 어머니와 아내의 역할에서 자연스럽게 역할의 재구성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몇 경

우(B, G, L)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전업주부들은 자녀들이 독립하고 난 후 남편과 동반자로서의 삶을 기대하고 있었다. 이들은 젊은 시절 고생은 했지만 현재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남편과 서로 독립적이면서 서로를 인정해주는 관계로 달라져 가고 있었다. 이들은 현재의 부부관계에 만족하고 있었다.

인생초기 조건의 누적효과를 탐색한 결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경우에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것과 관련되었고, 좋은 조건을 가진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과 관련되어 선행연구를 반영했다(장휘숙, 2008; Pulton et al., 2002).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누적효과가 결혼까지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 여성들의 삶의 과정은 가까이 보면 선행연구들과 같이 배우자 선택과 관련하여 그 방향을 크게 결정짓는 것으로 보였다(Diener et al., 2000; Lansford et al., 2005).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결혼이 긍정적 전환점이나 부정적 전환점으로 작용하는데 인생초기의 조건과 무관한 듯 보였다. 즉 사회적인 조건보다는 심리적인 조건이 이들의 삶을 부정적으로 전환하는데 기여했을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이는 결혼 후 적응능력이 중요한 것으로 보였는데, 결혼 적응능력이 교육이나 어렸을 때의 유복함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는 앞으로 더 탐색해 보아야 할 부분이다. 결혼이 중년기 여성의 삶에 중요한 전환적 사건이라는 점에서 젊은 세대에게 이와 관련된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된다.

인생초기의 누적효과 중, 청소년기의 자아의 정체감의 형성 여부가 좋은 환경과 나쁜 환경을 넘어서서 중년기 삶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대학을 졸업한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진행된 최근의 연구들에 의하면 청년기의 자아정체감의 발달은 중년기에 삶의 만족과 자아존중감과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며, 이후의 생성감이라는 심리적 발달과 행복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DeHaan & MacDermid, 1995). 본 연구에서 어린 시절 경제적으로 유복했으며, 청년기에 정체감이 없이 온실 속 화초처럼 성장하였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혼을 수동적으로 선택했던 사례 B와 G의 중년기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으나 배우자에 대한 만족은 아주 낮았다. 그들은 현재는 큰 후회와 함께 더 이상 남편과 화해하거나 수용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진정한 자신이 되고 싶은 소망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사회봉사활동 등을 통해 자신만의 존재를 찾아가고 있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중년기에 인생을 후회할 때, 자신감과 주장성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과감하게 수정하며, 과감히 수정하지 못하는 경우는 안주를 하며 혼란이 지속된다(Stewart & Vandewater, 1999; Landman, Vandewater, Stewart, & Malley., 1995). 본 연구에서의 두 참여자들도 자신의 선택에 대한 불만을 전면 수정하기 힘든 것으로 보였다.

본 연구의 의미와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기 전업주부들이 역동적으로 살아온 삶을 재조명하고 평가하는 과정 속에 들어있는 단계들과 주요 주제들을 파악했다. 이러한 주제에 대한 내용을 통해 중년기 전업주부들을 위한 교육이나 상담적 개입을 통해 자신의 삶을 평가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그 동안 진행된 연구들과 차별화하여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삶 전체의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이전과 이후의 발달의 다양한 경로를 설명하려고 시도했다. 셋째, 본 연구는

양적 연구 중심의 연구가 대다수인 환경에서 전기적 면담법을 사용한 질적 연구를 시행하여 전업주부들의 생생한 삶의 체험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었다. 넷째, 삶의 재평가는 과거와 현재의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아가면서 남은 미래를 새롭게 구성한다는 측면에서 유익하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과거와 현재를 연속선상에서 돌아보며 자아와 환경에 대하여 재평가하고 긍정적으로 재구성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점에 대해 참여자들은 연구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놀라기도 하고 한편 이때까지의 삶을 정리했다는 홀가분한 느낌을 보고했다. 그리고 자신과 자신이 살아온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수용하게 되었다는 등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과거를 회상하라는 질문 자체가 강력한 치료적 개입이라는 주장을 반영했다(Lewchanin & Zubrod, 2001).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가 참여자의 심리적 삶의 건강에 적으나마 기여할 수 있었다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넷째, 중년의 전업주부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상담적 개입을 통해 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노년기의 삶을 새롭게 재구성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에게도 배우자 선택, 결혼적응 교육이나 결혼 후의 삶의 경로를 미리 조망해 보도록 할 수 있다는 데 시사점이 있다.

전기적 면담법이 회상하는 과정에서 기억의 왜곡이나 과장이 있을 수 있으나 회고적 기술과 현재의 기술 간에 큰 차이가 없다는 연구가 있다(Harker & Solomon, 1996). 그리고 삶의 질이나 웰빙에 관한 연구는 과거 전환에 대한 해석이 객관적 경험인지 주관적 사후 해석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으며(Perrig-Chiello et al.,

2004), 삶의 과정에 대한 주관적인 재구성, 또는 삶의 회고 같은 주관적 변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Schwarz & Strack, 1999; Keyes et al., 1999). 모든 자서전적 기억들은 과거에 대한 주관적 재구성이며 실제 삶의 안녕에 기여하는 것은 기억에 대한 정서적인 질이지 객관적인 사건 자체가 아니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우선, 연구자가 직접 인터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면접상황에서 얻어지는 비언어적인 표현이나 기타 중요한 정보를 놓쳤을 수 있다. 두 번째로 연구 참여자들의 학력이 고졸이상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중년의 전업주부 중에 학력이 낮은 사람들의 특성과는 다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결혼이 전환점으로 작용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와 취업주부나 중년남성과의 차이를 비교하지 못했다. 향후, 본 연구자들은 취업 주부와 중년기 남성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삶의 재조명 과정을 파악하고 전업주부의 삶의 과정과 비교해 볼 것이다. 또한 노년과 다른 세대에 확장하여 세대별 또는 동시대 집단 간 비교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중년기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재조명하고 미래를 재조직하고 노후에 통합된 삶을 준비하게 되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 김경신, 김정란 (2001). 중년기 기혼여성의 자아정체감 및 위기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9(4), 105-120.
- 김경선, 성승연 (2012). 독서치료를 경험한 중년여성의 삶의 인식변화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3), 475-516.
- 김혜선, 이재림 (2004). 30대 중후반 기혼남녀의 배우자선택과 결혼생활의 의미. *가족과 문화*, 16(2), 3-54.
- 변외진, 김춘경 (2007). 중년여성의 자아정체감에 관련된 심리사회적 요인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3), 255-276.
- 이경혜, 김언주 (2001). 중년여성의 역할적응에 따른 자아정체감 형성과 발달에 관한 연구. *교육심리연구*, 15(2), 157-176.
- 이복희, 박아청, 이경혜 (2010). 중년기 취업여성의 가계경제수준, 자아존중감, 역할적응 및 자아정체감 간의 구조적 관계. *교육심리연구*, 24(1), 103-120.
- 이은정 (1997). 한국노인의 회상의 본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휘숙 (2008). 인생과정 조망과 성인기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1(3), 99-113.
- 조금숙, 조증열 (2004). 취업주부와 전업주부의 심리적 안녕감: 성역할태도, 스트레스 및 결혼만족도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9(3), 27-41.
- 조희선, 양다진 (2003). 중년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 6, 193-214.
- 장재윤, 유 경, 서은국, 최인철 (2007). 일상재구성법을 통해 살펴본 남녀직장인과 주부의 삶의 질.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2), 123-139.
- 전경구, 김교현 (2003). 한국 주부의 생활스트레스와 대처양상.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1), 1-39.
- 전경숙 (2010). 한국 중년의 안녕감: 행복과 삶의 의미에 대한 척도 개발 및 집단 간 비교.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홍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역 (2005). *질*

- 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전통. 학지사.
- 차영란, 김기범, 전경숙 (2007). 중년여성의 일상생활 속의 사회적 역할과 삶의 만족과의 관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3), 299-313.
- 한경혜 (2004). 생애사 연구를 통한 노년기 삶의 이해. *한국노년학*, 24(4), 87-106.
- Baltes, P. B. (1997). On the incomplete architecture of human ontogenesis: selection, optimization, and compensation as foundations of developmental theory. *American Psychologist*, 52, 366-381.
- Brammer, L. M. (1992). Coping with life transitions.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Advancement of Counselling*, 15, 239-253.
- Bühler, C. (1968). The developmental structure of goal setting in group and individual studies. In C. Bühler & F. Massarik (Eds.), *The course of human life* (pp.27-54). New York: Springer.
- Caspi, A. & Roberts, B. W. (1999). Personality continuity and change across the life course. In L. A. Pervin & O. P. John (Eds.),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2nd ed., pp.300-326). New York: Guilford Press.
- Clausen, J. A. (1993). *American lives: Looking back at the children of the great depression*. New York: Free Press.
- Clausen, J. A. (1995). Gender, contexts, and turning points in adults' lives. In P. Moen, G. H. Elder Jr., & K. Luscher (Eds.), *Examining lives in context: Perspectives on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pp.365-389). Washington, DC: APA.
- DeHaan, L. G. & McDermid, S. M. (1995). Is women's identity achievement associated with the expression of generativity? Examining identity and generativity in multiple roles.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1, 235-247.
- Diener, E, Gohm, C. L., Suh, E., & Oishi, S. (2000). Similarity of the relations between marital status and subjective well-being across cultur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1, 419-436.
- Elder, G. H. Jr. & Shanahan, J. (1998). The life course and human development. In W. Damon & R. M. Lerner (Eds.), *Handbook of childpsychology: Vol. 1. Theoretical models of human development* (5th ed.). New York: Wiley.
- Erikson, E. H. (1976). Reflections of on Dr. Borg's life cycle. *Daealus*, 105, 1-28.
- Lerner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1. Theoretical models of human development* (5th ed., pp.1029-1143). NewYork: Wiley.
- Frankl, V. E. (1959). *Man's search for meaning: An introduction to logotherapy*. Boston, MA: Beacon Press.
- Giorgi, A. (1994). A phenomenological perspective on certain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Journal of Phenomenological Psychology*, 25, 190-220.
- Harker, L. & Solomon, M. (1996). Change in goals and values of men and women from early to mature adulthood,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3, 133-143.
- Hunter, S. & Sundel., M. (1994). Midlife for women: A new perspective. *Journal of Women & Social Work*, 9(2), 113-128.
- Jacque, E. (1965). Death and mid-life crisi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46, 502-514.

- Jung, C. G. (1954). *The development of personality*. New York: Pantheon.
- Keyes, C. L. & Ryff, C. D. (1999). Psychological well-being in mid-life. In S. L. Willis & J. D. Reid (Eds.), *Life in the middle: Psychological and social development in middle age* (pp.161-182).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Lachman, M. E. (2004). Development in Midlif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5, 305-331.
- Landman, J., Vandewater, E. A., Stewart, A. J., & Malley, J. E. (1995). Missed opportunities: Psychological ramifications of counterfactual thought in midlife women.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2, 87-97.
- Lansford, J. E., Antonucci, T. C., Akiyama, H., & Takahashi, K. (2005). A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pproach to social relationships and well-being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36, 1-22.
- Levinson, D. J., Darrow, C. N., Klein, E. B., Levinson, M. L. (1978). *The season's of a man's life*. New York: Knopf.
- Levinson, D. L. (1986). A conception of adult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41, 3-13.
- Levinson, D. J. (1996). *The season's of a woman's life*. New York: Knopf.
- Lewchanin, S. & Zubrod, L. A. (2001). Choices in Life: A Clinical Tool for Facilitating Midlife Review.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8(3), 193-196.
- Luthar, S., Cicchetti, D., & Becker, B. (2000). The construct of resilience: A critical evaluation and guidelines for future work, *Child Development*, 71, 543-562.
- Marks, N. F., Bumpass, L. L., & Jun, H. (2004). Family roles and well-being during the middle life course. In O. G. Brim, C. D. Ryff, & R. C. Kessler (Eds.), *How healthy are we? A national study of well-being at midlife* (pp. 514-549). Chicago: Univ. Chicago Press.
- Moen, P. & Wethington, E. (1999). *Midlife development in a life course context; Life in the middle*. (pp.3-23). San Diego: Academic Press.
- Peck, R. C. (1968). Psychological developments in the second half of life. In B. L. Neugarten (Ed.), *Middle age and aging* (pp.88-92).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errig-Chiello, P. & Perren, S. (2005). Impact of past transitions on well-being in middle age. In S. L. Willis & M. Martin (Eds.), *Middle adulthood: A lifespan perspective* (pp.143-178).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Perrig-Chiello, P. & Perrig, W. (2004). The impact of personality, context and memorized life transitions on well-being. In R. Levy(Ed.), *Advances in interdisciplinary life course research*. Manuscript in preparation.
- Poulton, R. Caspi, A., Milne, B. J., Thomson, W. M., Taylor, A. & Sears, M. R., & Moffitt, T. E. (2002). Association between children's experience of socioeconomic disadvantage and adult health: A life-course study. *Lancet*, 360, 1640-1645.
- Reker, G. T. & Wong, P. T. P. (1988). Aging as an individual process: Toward a theory of personal meaning. In J. E. Birren & V. L. Bengtson (Eds.). *Emergent theories of aging* (pp. 214-246). New York: Springer.
- Rönkä, A., Oravala, S., & Pulkkinen, L. (2003). Turning points in adults' lives: The effects of

- gender and the amount of choice.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10(3), 203-215.
- Rutter, M. (1996). Transitions and turning points i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As applied to the age span between childhood and mid-adulthood.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9, 603-626.
- Ryff, C. D. & Baltes, P. B. (1976). Value transitions and adult development in women: The instrumentality-terminality hypothesis. *Developmental Psychology*, 12, 567-568.
- Schwartz, N. & Strack, F. (1999). Reports of subjective well-being: Judgmental processes and their methodological implications. In D. Kahneman, E. Diener, & N. Schwarz (Eds.), *Well-being: The foundations of hedonic psychology* (pp.61-84).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Stallings, M. C., Dunham, C. C., Gatz, M., Baker, L. A., & Bengtson, V. L. (1997). Relationships among life event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More evidence for a two-factor theory of well-being.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16, 104-119.
- Staudinger, U. M. & Lindenberger, U. (2003). Understanding human development takes a metatheory and multiple disciplines. In U. M. Staudinger & U. Lindenberger (Eds.), *Understanding human development: Dialogues with lifespan psychology* (pp.1-13). Norwel, MA: Kluwer.
- Stewart, A. J. & Vandewater, F. A. (1999). "If I had to do over again...": Midlife review, mid-course corrections, and women's well-being in midlif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 270-283.
- Vaillant, G. E. (1990). Avoiding negative life outcomes: Evidence from a forty-five year study. In P. B. Baltes & M. M. Baltes (Eds.), *Successful aging: Perspectives from the behavioral sciences* (pp.323-358).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erner, E. E. & Smith, R. S. (2003). *Journey from childhood to mid-life: Risk, resilience, and recovery*.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Wang, E. & Snyder, D. S.(Eds.) (1998). *Handbook of the aging brain*.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Zika, S. & Chamberlain, K. (1992). On the relation between meaning in lif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83, 133-145.

논문 투고일 : 2012. 10. 17

1 차 심사일 : 2012. 10. 22

게재 확정일 : 2013. 2. 20

Life Revaluation of Korean Housekeepers in Midlife

Jeon, Kyung-Sook

Jung, Taeyun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aimed at investigating how Korean housekeeper in midlife reevaluate their lives. For this purpose, 14 housekeepers whose youngest child was at least older than high school students were interviewed in a semi-structured retrospective method. The interview was focused on relational, psychological, and economical aspects of the participants before and after marriage each. The interview usually continued one and a half to two hours. The phenomenological method describing personal meaning of experiences was referred to for data analyses by transforming retrospective life story of participants into key meaningful units. According to main retrospective contents of each stage of development, the participants' childhood and adolescence was characterized by familial circumstances, formation of personality and value, and career choice. Main themes of their early adulthood were spouse selection and marriage, marital adaptation, and family relationships. Their midlife focused on children, economic and emotional stability, family relationships, acceptance of their spouse and themselves, and health and religion. Life styles of the participants were analyzed in terms of turning events, meanings of current life, and cumulative effects of life events.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in terms of developmental pattern in relation to the established theory of development.

Key words : midlife, life reevaluation, housekeepers, turning point, and resilience